다시 만난 단짝, KIA 마운드 성장판 연다

김현수

'우완' 김현수 '좌완' 김기훈

고졸 2년차…2018 아시아 청소년야구선수권 금메달 합작
김현수, 안치홍 롯데행 보상선수로 KIA 이적… 다시 한솥밥
나란히 스프링캠프행…"선의의 경쟁으로 실력 보여주겠다"

다시 만난 '단짝' 김기훈과 김현수가 KIA 마운드의 쌍두마차를 꿈꾼다.

KIA 타이거즈가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스프링캠프가 꾸려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로 향했다. 먼 길을 떠나는 이들 중에서도 유독 실과 바늘처럼 함께 한 두 선수가 있었다.

지난 시즌 KIA 마운드의 '샛별'로 주목받은 좌완 김기훈과 안치홍의 보상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우완 김현수였다.

고졸 2년 차인 두 사람은 2018년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야구연맹(BFA)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았던 동기 사이다.

당시 한국은 대만과의 결승 경기에서 연장 10회 승부치기 접전 끝에 7-5로 이기며 대회 정상에 올랐었다.

대표팀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두 친구는 김현수의 이적으로 다시 동료로 한솥밥을 먹게 됐다. 두 사람은 KIA가 기대하는 마운드의 희망이다.

광주 동성고 출신의 김기훈은 지난해 1차 지명을 받아 입단한 뒤 1군 무대에서 선발 경험을 쌓은 특급 유망주다.

서울 장충고를 졸업하고 롯데의 2차 3라운드 지명을 받아 프로에 데뷔한 김현수도 지난해 1군에서 6경기에 나와 잠재력을 보여준 기대주다.

"둘이 베프"라며 웃은 김현수는 "공통점이 많다. 음식·옷 취향, 놀러 가는 것도 비슷하고 개그 코드도 맞다"며 웃었다.

가장 닮은 부분은 '성실함'이다.

김현수는 "성실하고 꾸준함이 좋은 선수다"며 친구를 이야기했고, 김기훈도 "뭐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며 친구 김현수에 대해 말했다.

취향과 성실함이 닮아 끌린 두 친구는 다른 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가장 든든한 힘으로 프로 첫해를 보냈다.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하는 친구이자,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가 됐다.

김현수는 "다른 팀에 있어도 제일 많이 연락하고, 서로 축하할 일 축하해주고 슬픈 일 위로해주는 사이였다"며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인처럼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KIA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선발이라고 들었다. 거기에 맞게 몸 잘 만들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개인적인 각오도 밝혔다.

지난해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쌓은 김기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시즌을 꿈꾸고 있다.

김기훈은 "겨울에 공도 많이 던지고 웨이트 등을 집중훈련했다. 작년 시즌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려고 했다"며 "지난 시즌 좋았던 것보다 안 좋은 점, 보완해야 할 점이 더 많아서 그걸 많이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또 "일단 부상 없이 캠프를 잘 완주하는 것이 목표다"며 프로 두 번째 캠프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훈

이재성-백승호 '코리안더비'

분데스리가 2부리그 선발 출격
이, 3호 도움·9번째 공격포인트

이재성(홀슈타인 킬)이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된 독일 프로축구 2부 분데스리가에서 도움을 추가했다.

백승호(다름슈타트)도 선발 출격해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이재성은 30일 독일 킬의 홀슈타인-슈타디온에서 열린 다름슈타트와의 2019-2020 2부 분데스리가 19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30분 슈테판 테스커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다.

전반기 정규리그에서 6골 2도움을 기록했던 이재성은 도움을 추가하며 9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컵대회(1골 1도움)까지 포함하면 시즌 전체 기록은 7골 4도움이다.

이재성이 킬의 왼쪽 측면 공격수, 백승호가 다름슈타트의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한국 선수 간의 맞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두 팀은 1-1로 비겼다.

킬은 10위(승점 24), 다름슈타트는 11위(승점 22)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성은 전반 22분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날카로운 왼발 중거리 슛이 낮게 날아가다가 오른쪽 골대를 맞혀 득점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이어진 엠마누엘 이요하 슈팅도 바깥 그물을 때렸다.

전반 30분 이재성은 코너킥 이후 경합 상황에서 흐른 공을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정확히 왼발로 띄웠고, 이를 테스커가 머리로 받아 넣어 킬이 먼저 골문을 열었다.

다름슈타트가 먼저 한 골을 내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반 38분 백승호가 교체돼 나가면서 '코리안 더비'는 다소 일찍 막을 내렸다.

이른 교체카드 가동 이후 다름슈타트는 전반 45분 센다르 두르순이 동점 골을 터뜨려 전반을 1-1로 맞섰다.

후반에도 균형이 깨지지 않은 가운데 이재성은 후반 42분 교체되면서 다음 경기를 기약했고, 두 팀은 승점 1을 나눠 가졌다.

휴식기 직전인 지난달 22일 18라운드에서 데뷔 첫 도움을 올렸던 킬의 측면 수비수 서영재는 벤치에 대기했으나 출전 기회를 잡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김학범 "이강인도 올림픽 선발 보장 못해"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역대 첫 우승을 이끈 김학범 감독이 30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 'AFC U-23 챔피언십 결산' 기자회견
"유럽파라도 경쟁 피할 수 없어…정우영, 경기력 더 끌어 올려야"

"합류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김학범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이 '유럽파' 이강인(발렌시아)과 백승호(다름슈타트)도 2020 도쿄올림픽 본선에 나서려면 '원점'부터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신화의 주역이며 소속팀 발렌시아(스페인)에서 차곡차곡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이강인은 한국 축구 팬들이 가장 아끼는 선수다.

부상으로 잠시 숨을 골랐으나, 최근 다시 소속팀 경기에 선발로 나서며 제 기량을 찾아가고 있다.

바르셀로나(스페인) 유소년 출신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다름슈타트에서 뛰고 있는 백승호 역시 정규리그 경기에 꾸준히 출전하고 있다.

한국 축구의 미래로 평가받는 두 선수가 나란히 올림픽 무대를 누비는 건 한국 축구팬들의 '희망 사항'이기도 하다.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역대 첫 우승과 올림픽 본선 출전권 획득을 끌어낸 김 감독은 두 선수의 능력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쟁을 통해 증명해야만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김 감독은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럽에서 뛰는 선수라고 해서 선발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해준다"면서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기량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서야 들어올 수 있다. 능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했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 정우영(뮌헨)에 대해서도 경기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 1군에서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던 정우영은 이번 대회 직후 바이에른 뮌헨에 임대 방식으로 복귀했다.

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려면 2군 무대에서라도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은 "정우영이 예전에 직접 뮌헨에서 봤을 때보다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최근 뮌헨으로 복귀했던데, 본인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우영과 달리 이강인과 백승호는 1군에서 뛰고 있어 발렌시아와 다름슈타트가 과연 이들의 차출을 허용해 줄지도 관건이다. 김 감독은 두 구단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통을 해왔다며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망 있게 바라봤다.

김 감독은 "두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합류는 못했지만,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구단과 관계는 아주 좋게 흘러갔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맨시티, 카라바오컵 결승행

1·2차전 합계 3-2 맨유 꺾어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지역 라이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따돌리고 3시즌 연속 카라바오컵 결승에 올라 대회 3연패를 노리게 됐다.

맨시티는 30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에서 10명이 싸운 맨유에 0-1로 패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준결승 1차전에서 맨유를 3-1로 꺾은 맨시티는 준결승 1, 2차전 합계 3-2로 앞서며 결승 진출권을 따냈다.

이로써 맨시티는 2017-2018시즌, 2018-2019시즌에 이어 세 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맨시티는 레스터시티를 따돌리고 2009-2010시즌 이후 10년 만에 결승에 오른 애스턴 빌라와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단판 승부로 우승을 다툰다.

맨시티는 이날 맨유를 상대로 점유율 61%-39%, 슈팅수 13개(유효슛 4개)-6개(유효슛 2개)로 앞섰지만 정작 스코어에서는 0-1로 패했다.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1차전 원정에서 맨유를 크게 이긴 맨시티는 전반 초반부터 공세의 수위를 높였지만 상대 '수문장' 다비드 데헤아의 잇따른 선방에 막혔다.

맨시티의 초반 공세를 막아낸 맨유는 전반 35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승골을 따냈다.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프레드가 올린 프리킥이 맨시티 수비수 맞고 흘러나오자 네마냐 비디치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발리슛으로 선제 결승골을 터트렸다.

전반을 0-1로 끝낸 맨시티는 후반 31분 맨유의 선제골 주인공인 비디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차지했지만 끝내 만회골을 넣지 못하고 0-1로 경기를 끝냈다.

하지만 맨시티는 1차전 3-1 승리 덕에 2차전 패배에도 맨유를 따돌리고 결승에 안착했다.

/연합뉴스